

투자유치 '이율배반' 도마 위

도, 조례개정 투자진흥지구 취득세 등 감면을 축소 투자기업 세금 가중시키며 기업 유치 부지는 몰색

제주자치도가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 투자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지만 오히려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달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도내 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 85%에서 75%로 축소할 예정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율은 현행 50%에서 25%로 축소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4일 제주도의회에 제출

할 예정이며, 개정 조례안 통과시 도내 41개 투자진흥지구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현재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JDC는 연간 50억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투자유치를 위한 비용으로 써야 할 '빚짓돈'이 세금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제주로 이전한 한 기업연수원 관계자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세금면혜택을 보고 제주에 투자해 연수원을 건립했는데 앞으로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면 제주에 내려온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존 도내 투자기업들의 세부담은 늘리면서 도내 43개 읍면

동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유휴 건물과 토지를 몰색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수요조사후 투자유치 상품화로 연계가 가능한 자원에 대해서는 도의 기업의 분사,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 입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도내에서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중국인 사업가는 "제주도의 투자정책이 자주 바뀌어서 추가로 투자하기가 불안하다"며 "제주의 투자유치 정책이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과세를 늘릴때는 납부 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보고 판단하고 있다"며 "JDC 같은 경우는 면세점 매출 수익이 있어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모기자



대학생 취업 상담 27일 제주대학교에서 '2021 청년취업 JOB 아라 페스티벌'이 열린 가운데 대학생들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이상국기자

비상품감귤 유통 제값받기 '찬물'

도-자치경찰 단속에 50여건 적발... 수도권서 불법유통 확인

비상품 제주 감귤 유통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감귤 제값 받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감귤출하연합회, 농협과 특별단속반을 꾸려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도외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6건의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준 당도(10브릭스)에 미달하는 비상품 소과 유통이 18건, 일부 중결점과 대과 유통이 18건이다.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36곳을 상대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적발된 감귤은 폐기 처분된다.

앞서 제주자치경찰이 지난 20일부터 22일 사이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 등을 상대로 벌인 단속에서도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22건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하는 11월부터 감귤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자치경찰을 비롯해 감귤출하연합회, 농협과 함께 소비지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2차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 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11월 한 달간은 농가 택배작업 현장, 도내 온라인 전문 선과장, 농산물직판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렌터카 사망사고 1년새 갑절 ↑

올해 10월 현재 6명 숨져... 20·30대가 대부분

올해 제주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갑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본부장 김규호)에 따르면 올해 10월 27일까지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갑절(3명→6명) 증가했다. 올해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는 현재까지 집계된 전체 교통

사고 사망자 39명 중 6.5%를 차지했으며,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사망자 수로만 한정하면 50%(12명 중 6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연령대별 렌터카 교통 사망사고는 20·30대 운전자가 66.7%(6명 중 4명)로 가장 많았다.

렌터카 사망사고가 증가한 이유는 운전자 대부분이 관광 목적인 경우가 많아 지리에 미숙한데다,

사고다발지점이나 위험구간 등 교통안전 취약지점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던 것을 가장 큰 요인으로 교통안전공단은 분석했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렌터카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의 대비가 필요한 상태다.

김규호 본부장은 "렌터카는 젊은 20·30대 운전자들의 과속에 의한 사고가 많기 때문에 과속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이 중요하다"면서 "렌터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대여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확산일로 코로나 집단감염 멈췄다

27일 오후 5시 기준 4명 확진... 모두 개별 사례

제주지역에서 확산하던 집단감염이 드디어 멈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후 5시 기준 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는 총 3086명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신규 확진자 4명 중 3명은 타 지

역 확진자의 접촉자, 나머지 1명은 타 지역 방문객이다.

제주도는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고, 숙소 및 자택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또 확진자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현장 폐쇄회

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들은 개별 감염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날 내내 이어지던 집단감염은 멈췄다.

제주지역에서는 10월 들어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을 연결고리로 새로운 집단감염이 나타나 방역에 대한 불안이 컸었다. 이상민기자

제주대 총장 선거 11월 25일 온라인 투표

후보자 등록 11월 8-9일

제11대 제주대학교 총장 선거가 11월 25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대학교 교로부터 제11대 제주대학교총장 임용후보자선거를 위탁받아 다음 달 선거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대 총장 선거가 온라인으로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제주시선거관은 "이전과 달리 온라인투표로 실시되는 만큼 온라인 투

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선거인의 권리행사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장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은 11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으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4층 대강당에서 접수한다. 11월 25일 선거는 오전 8시에 1차 투표를 시작해 오후 6시에 결선 투표를 마감한다.

현재 제주대 안팎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자천타천으로 김동진, 김일환, 김희철, 박경린 교수가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진선희기자

제주소방, 소방차 운용 3위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최근 전국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소방청이 실시한 '소방자동차 운용능력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펌프차, 고가사다리차 등 주력 소방차량 4종 운용 대원에 대한 조작 능력 및 차량 정밀 점검 이행실태 여부를 확인했다.

평가 결과 서귀포소방서가 전국 19개 시도·본부(38개 소방서) 중 3위(장려)를 차지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소마일센터 개소 1주년

제주소마일센터란?

강력범죄피해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에 대해 심리치료, 법률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법무부 위탁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입니다.

제주소마일센터 서비스 안내

- 심리평가**
범죄피해로 인한 후유증의 정도와 치료적 개입을 위한 평가
- 심리치료**
전문훈련을 받은 치료진이 개인별 맞춤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 임시거주시설**
범죄피해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임시 생활관 제공
- 법률 및 사회지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및 법률상담 사회적응을 위한 사례관리 및 지역 네트워크 연계

제주소마일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및 가족
- 이용시간 및 방법**

전화접수 및 상담	24시간	064-742-1295
온라인접수	24시간	www.resmile.or.kr
등록면담 심리치료·상담	월~금 오전9시~오후6시	사전(전화) 예약 후 센터 방문

- 이용요금 - 무료**
- 접수방법**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검찰, 경찰 및 관련 기관의 의뢰
범죄피해자나 가족이 전화 & 홈페이지 접수 후 이용 가능

[제주소마일센터]
▶ 제주시 동광로 1길 9(이도일동) ▶ (TEL) 064-742-1295 / (FAX) 064-745-1295
▶ (Web) http://resmile.or.kr/ ▶ (E-mail) jejusmile1295@naver.com